

# 이렇게 들었다

## 생명의 소중함 사람 몸 수억겁 인연의 결과

"사람의 몸을 타고 나기 어렵기 가 우담화(優曇花)의 꽃만 같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얻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남성의 미성숙 정자를 쥐고 고환에서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해 아기를 탄생시켰다. 불임부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면 의학적 윤리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쥐어주기 보다는 97년 복제 양 돌리의 탄생 못지 않게 생명공학이 인간의 삶 전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이란 무수한 연기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경전의 말씀을 살펴본다.

■ 눈 먼 거북과 부목은 다른 데를 돌아다니더라도 혹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은 범부에게 이르러서는 오취(五趣)를 휘둘러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저 거북의 경우보다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뛰어난 의욕을 일으켜 가르침을 닦아야 하느니라. <집아함경>

■ 여섯 원인이 모여 사람의 육체가 되는 바, 지(地)의 원소, 수(水)의 원소, 화(火)의 원소, 풍(風)의 원소, 공(空)의 원소, 식(識)의 원소가 그것이다. <정사오원경>

■ 사대(四大)가 잠시 모여 있으므로 편의상 이름지어 몸이라 하는바, 이 사대에는 주재자(主宰者)가 없는 터이니 몸에도 자아(自我)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유미경>

■ 인명(人命)의 범주지 않음이 산골짜기에 대해서도 심해서, 오늘 살아 있더라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어떻게 마음을 단속지 못해 악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젊은 육체의 머무르지 않음이 오히려 달리는 말과도 같다. 어떻

게 그것을 믿어 교만을 일으키겠는가? <열반경>

■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 존재의 진실 불변한 본성(本性)은 원래 공적(空寂)하여 이리저리 양상이 없으니, 허공 같이 분별이 불가능하다. 여러 집착하는 생각을 초월하고 말할 길이 끊어진 상태여서, 진실·평등하고 언제나 청정하다. <화엄경>

■ 중생의 받은 몸도 역시 그러해서, 일단 몸을 받고 나면 바로 온갖 괴로움의 그릇이 되고 말아서, 큰 나무의 무성한 꽃과 과일을 뜻새들이 삼사리 깨는 것과 같고, 많은 마른 풀을 조그만 불이 능히 태우는 것 같아, 중생이 받은 몸도 괴로움에 의해 파괴되고 마느니라. <열반경>

■ "무엇을 일생이라고 합니까." 한 번 일태워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일생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차례로 무수한 생애 이릅니다. <선경을 비바사론>

■ 어떠한 생명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을 저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상승부 경전>

■ 죽이는 인(因)과 죽이는 연(緣)과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업(業)으로 목숨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된다.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법명경>

■ 산것을 몸소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목인해도 안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수타니파티>

■ 불자는 자비한 마음으로 산 목숨을 놓아주는 일을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육도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법명경>

## 열반절의 참뜻 새기자

### 제언



성관스님 인도 대한사 주지

니르바나(nirvana)는 불교의 최종 목적이며 불교에 있어서 그것은 일체의 실천 수행과 사상적인 배우에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빠알리어 율장 소품에 다음과 같은 부처님 말씀이 있다. "비구들이여! 드넓은 바다 전체가 한결 같이 소금의 짠 맛이듯 나의 모든 가르침도 오직 해탈이라는 한 맛만을 가지고 있다." 일체의 고, 즉 불안 걱정 질병 등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때 인간은 진정한 해탈을 얻게된다는 경전에서 열반을 자기소멸로 해석하고 있다. 열반은 죽음과 더불어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해탈의 경지이다. 열반절을 맞아 부처님께서 마가다와 같이 화려한 나라의 배설리같이 풍성한 거리를 버려두고 어찌하여 외롭고 가난한 쿠시나가라에서 대열반에 드셨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쿠시나가라는 유태르프 르데우주에 있다. 열반당 안에는 5세기경의 와불이 있어 참배객들을 숙연케 한다. 그 뒷편에는 부처님 사리탑이 있으며 열반

당 앞에는 부처님 당시 것은 아니지만 두 그루의 사라수가 있다. 쿠시나가라에는 여러 불교국가들이 세운 절이 있다. 미얀마 절이 가장 먼저인 1902년 세워졌다. 중국절은 1948년, 티베트절은 1968년, 일본절은 1985년에 지어졌다. 우리나라 절인 대한사 맞은편에는 태국절이 있는데 태국정부와 왕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제 위기사수행관, 병원, 학교 등의 공사가 한창이다. 대한사는 1992년 불사를 시작해 지금 진행중이다. 불자들이 심시일반으로 도와준다면 부처님 열반지에 한국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열반절을 맞아 한국불교의 포교와 불교중흥의 기도체인 대한사가 어서 회향의 날을 맞길 기원해 본다.

연락처: (인도)001-91-5564-72108, (한국)011-269-7208

# 독자의 소리

## '승가구성' 놓고 의견 분분 재가불자 포함해야 마땅

승가의 구성은 출가2부중인가, 4부대중인가, 이 논쟁은 재가불자들의 불교 내 위치와 역할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나의 의견은 승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귀의의 세 번째는 '歸依 佛 中尊(귀의승 중존)'이다. 그러나 이 승에 대한 규정은 화자에 따라 달라진다. 경전의 서술 역시 이 승가의 특징을 손으로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굳이 가르치면 원론적으로는 출가자를 지칭하는 쪽에, 현상적으로는 사부대중에 가깝다.

승가란 용어는 불교 교구의 용어가 아니라 상공업자 조합이나 정치적 단체, 공화정체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였으나, 불교에서는 교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승가의 특징은 평등, 무차별의 교단이었다는 점과 만민에게 개방된 교단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등, 무차별의 불교승가의 목적은 화합상(和合僧:samagga-samgha)의 실현이었다.

엄밀한 의미의 승가는 출가수행자에 가깝고 재가자까지 포함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교단의 구성에서 재가자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이고 불교의 이상인 깨달음을 역시 만민을 향해 열려 있었다. 초기 경전에는 재가신자이면서도 출가한 아라한과 다름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나 강한 신앙과 법력을 소유한 남녀 불제자가 많음을 서술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재가자가운데 법을 설하는 설법자가 존재했고, 일단의 대중을 통솔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재가불자가 단지 법의 수용자나 단순한 외호자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듯이 법의 호지와 전수 역시 모든 대중에게 열려있었던 것이다.

김승호(조계종 포교사·서울 상도동)

수입물고기 방생 삼가고 불우이웃 위해 인간방생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방생범화가 많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생이란 보통 죽음에 직면한 생명을 살려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불교 5계중 으뜸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니 방생이란 이러한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수행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무수한 선행이 있지만 죽게 된 목숨을 살려주는 것보다 지고한 선행은 없을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의 흐름은 요즘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불자들의 실천덕목이 이타행이 아닐까 한다. 수입된 물고기를 방생하다보면 통통물고기들이 수입물고기기에 의해 멸종까지 되어 자연과파괴와 생태계 파괴까지 연결된다니 이왕이면 인간방생을 하자. 잡혀 죽을

목숨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산 물고기를 사서 풀어주어 자신과 가정의 복을 기원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수레바퀴처럼 돌고돌아 갈수록 엉겁다리 두렵게 쌓이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인간방생에 관심을 가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상을 같이 나누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김진형(충남 공주시)

불교방송·불교TV 살리기 불자들 심시일반 정성을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고자 설립된 불교방송 불교TV가 재정을 심각하게 겪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불교방송 후원회보를 받아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 방송으로 영생을 불멸을 널리 펴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가. 인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공부를 자질로 할 수 있는 고마운 방편인데 불자로서 불교방송 불교TV의 어려움을 나눌라라 하면 안될 것이다. 요즘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타를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 불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인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꼭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계침을 주고 배움을 주는 불교방송, 불교TV를 위해 심시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자.

김갑숙(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 스님-거사 호칭 구분은 불교의 질서 세우는 일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자와 재가신도는 분명히 구분되었다. 아무리 뛰어난 도인이라 할지라도 처자가 있는 한 〇〇거사로 불리워졌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 환속해 처자가 있는데도 〇〇스님이라고 불리워지거나 〇〇선사로 호칭되고 있다.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세 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도인들이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도를 터득한 거사가 여러분 있지만 도를 터득했다고 해서 〇〇선사라고 하지 않지 않는가.

원래 스님이라는 호칭은 후대인들이 그분의 훌륭하신 업적과 여러 상황이 고찰되어 불어준 것이지만 원초스님계서와 과거후 스스로 '소승거사'로 칭했다는 것이 기록에 분명히 나온다. 한국불교를 바르게 하는 일, 우선 호칭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묵(전북 전주시)

## 한글로는 뜻 이해 어려운 불교용어 한자병용 했으면

한글세대를 겨냥하여 현대불교신문은 '한글로 쓰지 않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한마디 건의하고자 한다. 전적으로 한글로만 쓰면 그해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성보 도난 백서' '광덕대신사 원적' '백서' '귀소야' 등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려면 괄호를 치고 한자를 병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문에 익숙한 사람으로 불교에 해박하다면 한글로만 써도 유추해서 알겠지만 불교신도라고 한다면 불자들이 만 읽으려는 법도 안다. 병용 불교용어는 한자병용을 꼭 해주었으면 한다.

최희환(서울 중로구 사직동)

## 목탁소리

김원우 <취재1부 기자>

## 재가회의와 재가연대

지난 95년 지성불교를 주창하며 사회지도층 2백여명이 50만원의 회비선납금 신성한 돌봄을 일으키며 교계의 관심속에 창립된 한국불교 재가회의가 20일 조용히 막을 내렸다.

재가회의는 해산과 함께 재가연대에 귀속키로 하고 남은 재정도 50%는 재가연대에 이관하고 50%는 불교방송에 기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95년 재가회의의 출범은 거창했고 교계의 기대를 모으면서 불교개혁의 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경주살리기 고수전철 통과반대에 앞장서는 등 활동을 펴기는 했으나 출범에 걸맞은 후속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스스로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재가회의의 해체가 갖는 파장은 단순한 단체가 없어졌는데 그치지 않는다. 재가지성인들이 도출해낸 단체의 행보는 곧 재가불교의 역랑과 앞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재가회의의 다수 인사들이 중심이 28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가 창립됐다. 재가연대는 재가회의의 전철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가연대 창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호지부처를 버리지 않을가 하는 우려 또한 있음을 새겨야 한다.

재가연대는 중단사태 와중에서 결함했다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계를간의 화합과 역랑을 맞춰가며 사회개혁의 민중화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바로세우기'를 주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중단사태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일정부분 수행해야 된다. 이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실천가능한 사업내용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크게는 연대단체로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펼쳐야 한다. 재가단체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문제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도 간과할 수 없다.

재가회의, 재가연합의 행보에 실망한 불자들의 기대가 재가연대에 모아지고 있는만큼 이를 바탕으로 불교재가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재가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www.kim@buddhapia.com)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의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며(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화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우므로 화생·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난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인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은 토종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호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증형영양강정(滋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새말·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묵과·솔이버섯·백목령·적목령·백목령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무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효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무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효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유희종도 없는 다이어트 솔효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회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호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p><b>솔효소정액</b></p> <p>원액 2,800ml (700ml 4병분량, 2개월분)</p> <p>정가 ₩700,000원 &lt;회원등록시 할인가격&gt; ₩500,000원</p> <p>특허출원 96-57796</p>	<p><b>솔선식</b></p> <p>한약 2개월분</p> <p>정가 ₩700,000원 &lt;회원등록시 할인가격&gt; ₩500,000원</p> <p>특허출원 96-5587</p>	<p><b>익수영진고</b></p> <p>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p> <p>최고급 보약중의 보약</p> <p>₩1,000,000원 (약 2개월분)</p>
--	---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